

**동해해수청, 노후 항로표지시설 보수공사로 선박 안전운항 확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강원권역 동해안의 노후된 항로표지시설\* 기능 개선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항행 안전정보를 선박에게 제공하는 항행 보조 시설로 등대, 등표 등이 있다.

항로표지시설의 색채와 형상을 보고 암초, 수중방파제 등의 항행위험요소를 인지하여 낮 동안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동해해수청은 해풍, 파도 등으로 탈색되어 기능이 저하된 항로표지시설을 재도장한다.

또한, 강원권역의 항로표지 점검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등대 관광객들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항로표지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도 추진한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동해안 항로표지시설의 기능 개선을 통해 최상의 항로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책임자	과 장	김동식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김관우 (033-520-6277)



탈색된 항로표지시설(삼척항북방파제등대)